



영산강 살리기 사업현장인 광주시 남구 승촌동 승촌보 건설 현장. 완공일이 2주 앞으로 다가 오면서 보 아래에 설치했던 가물막이를 제거하는 작업이 한창이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 막바지 준설공사 영산강 가보니

# 썩었다던 강바닥 퇴적토 멀쩡했다

## 전남대연구소 '양호' 판정...논흙 사용 윤곽 드러난 승촌보 2주뒤 시험가동 "지형바뀌 하천생태 피해" 반발 여전

1일 광주시 남구 승촌동 영산강 살리기 6공구 승촌보(淸·浬) 건설현장은 북적였다. 굴삭기가 뿔어대는 육중한 굉음과 분주히 오가는 덤프트럭의 소음도 끊이지 않았다. 이날 하루에만 덤프트럭과 굴삭기 90대가 투입됐고 300명의 인부들도 분주히 움직였다. <관련기사 3면>

장마철을 앞두고 홍수에 대비한 보강 공사를 서두르는 현장관계자들의 발걸음도 한층 빨라진 듯 했고 국토해양부도 이날부터 10여명의 안전점검사업단을 파견해 우기 대비 점검을 벌이고 있었다.

폭 512m에 이르는 강을 가로지르는 보(浬)와 나주평야의 주 산물인 나주쌀을 형성한 5개 기둥도 97%의 공정률을 기록하면서 윤곽이 뚜렷해졌다. 이미 9m 높이의 고정보(332m)와 가동보(180m)가 설치된 승촌보도 제 모습을 갖추 2주 뒤에는 시험 가동을 할 예정이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관계자는 "6공구의 경우 보와 준설 등 대부분의 공사가 마무리됐다"면서 "현재는 가물막이 철거 공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영산강의 준설 사업은 초기부터 찬·반 측이 오열된 퇴적토의 재활용 문제를 비롯해 '하천 생태계 파괴'와 '생태계 복원', '홍수 피해 가중' 등에 서로 '극과 극'의 해석을 내놓았던 4대강 핵심 이슈다.

그럼에도, 준설(浚渫) 공사는 영산강 구간에서 대부분 마무리됐다. 6공구의 경우 전체 구간(19.7km)에 쌓인 724만3000m<sup>3</sup>의 토사를 걷어내는 준설공정이 100% 마무리된 상태다.

익산청은 모두 8개 구간의 준설량 2467만m<sup>3</sup> 중 95.3%인 2351만m<sup>3</sup>에 이르는 토사를 걷어냈다.

전체적으로 1.5m~2m 정도의 흙을 걷어낸 현장에서 완전한 경사제방을 만드는 데 제사용하거나 인근 농경지 성토용과 공공사업장 등에 사용중이다. 애초 "영산강 바닥을 걷어내면 오염된 시커먼 흙으로 가득할 것"이라는 우려는 착오였다.

특히 준설토를 농경지 성토용으로 사용하는 문제는 애초보다 다소 잠잠해진 상황이다. 1년 전만 해도 준설된 퇴적토가 얼마나 오염됐는지, 농경지에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입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농경지 성토용으로 쓰는 게 말이 되느냐는 반대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익산청은 사업시행자가 전 구간에서 전남대 토양기술연구소에 의뢰, 비소·카드뮴·수은·니켈·납·아연 등 21개 항목에 대한 토양오염조사를 실시한 결과, 기준 이하라는 판정에 따라 농경지 성토용으로 공급했다.

농어촌공사도 "일부에서 제기됐던 주장과 달리, 썩은 토사는 없었고 농경지 성토용으로 적합했다"고 말했다. 해당 주민들도 낮았던 농지가 평균 1.4m 높일 수 있어 반기고 있다는 게 농어촌공사측 입장이다. 환경단체 측도 토양오염조사가 부분적으로 참여했다는 게 익산청측 설명이다.

강변 둔치를 완만하게 평탄화하는 작업에도 준설토가 사용되면서 이 구간에는 풀이 돌아오고 있었다.

하지만 강 바닥을 준설하면서 벗어날 수 있는 하천생태계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주장에 대한 입장차는 여전하다. 정확한 연구 결과가 없는 데다, 영향을 미치는 변수도 많고 복잡한 탓에 누가 맞는지 검증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광주환경운동연합 최지현 사무국장은 "지난 1월 26일 광주환경운동연합이 준설 공사 현장을 조사하던 중 검은빛을 띠고 기름 냄새가 나는 흙을 발견, 공사 중지 요청을 했지만 공사 측은 계속 공사를 진행했다"면서 "문제의 흙이 발견되면 당연히 공사를 중지하고 결과가 나온 뒤 다시 공사를 재개해야 하는 게 상식인데도, 예정에 맞추기 위해 속도전을 벌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진수기자 dok2000@kwangju.co.kr

학교설립 57주년 (1954~2011)  
기독교 명문대학  
광신대학교  
입학문의 대학원 062)605-1114

광주의 새로운 명문 대학교  
남부대학교  
(062) 970-0114  
꿈을 이루는 특성화 대학  
전남과학대학교  
(061) 360-5050

# 광주 지방자치 첫 주민청구감사

## 1999년 도입 이후 처음...매곡동 E마트 건축 인허가 대상

광주시 주민감사청구심의회가 1일 광주시 북구 매곡동 대형마트 건축허가와 관련 주민감사청구를 받아들여기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광주시가 지난 1999년 8월 주민감사청구제도를 도입한 이후 주민 청구에 의해 감사가 받아들여진 첫 사례가 됐다.

광주시는 주민감사청구심의회의 이날 결정에 따라 감사반을 설치해 60일 내에 '광주시 북구 매곡동 대형마트(E마트) 건축허가'와 관련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날 심의회에서는 장귀환씨 등 청구인이 불법허가 근거로 제시한 4가지 쟁점사항에 대해 감사청구인과 관계 공무원, 이해관계인을 참석시켜 관련증거를 제출받고 의견을 들었다.

심의회 관계자는 "건축관련법령 해석과 적용에 있어 위법사항이 있었는지에 대해 감사청구인과 북구청 관계자 간 의견이 상반돼 관련법에 대한 깊이 있는 검토와 현장 여건 실사 등을 신중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감사청구를 '수리'했다"고 밝혔다.

다만 심의회는 2010년 2월18일 건축주가 북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소송'에 대해 내렸던 법원의 판결을 인용, 북구청의 건축허가 처분이 공익을 현저히 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지난 12일 장씨 등 131명은 북구청의 대형마트 건축허가를 인허한 광주시민의 교통 악화, 지역경제 및 중소기업의 피해, 고려중·고교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등을 막는다는 취지로 광주시에 주민감사청구를 제출했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알림**

2년 만에  
1억으로 156억 만든  
강방천  
그의 투자비결은?

광주일본 경제 아카데미 순천 특강

강방천. 신안출신 51세 남자, 에셋플러스 자산운용 회장이다. 외환위기가 터진 1997년 종자돈 1억으로 투자를 시작해 2년 만에 156억 원으로 키웠다. 이후 투자자문회사를 만들었고 2008년 이 회사를 업계 유일한 직접판매 자산운용사로 전환했다. 현재 글로벌시장에 투자하는 '리치투게더 펀드'를 운용중이다. 그가 말하는 투자의 조건!

광주일본가 전국 투자자교육협의회와 함께 진행하는 경제아카데미 제2탄. 이번엔 순천에서 열린다. 수강료 무료.

- 주제 = 세상의 변화와 함께하는 가치투자
- 일시 = 6월 9일(목) 오후 4시
- 장소 = 순천시청 별관 4층 대회의실

\* 참석자들에게 '계화하는 삶은 아름답다' 단행본을 무료로 드립니다.

光州日報社

정부보급 '호폼버' 피해  
농가 인건비까지 지원

최근 정부 보급종 '호폼버'의 발아 불균형으로 피해를 입은 광주·전남 지역 농가에 인건비도 지원된다.

국립종자원 전남지원은 "정부 보급종 발아지연과 불균형 현상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한 각 시·군의 피해조사가 오는 15일까지 끝나면 종자대와 상토비, 인건비 등을 살피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는 농가의 피해정도를 ▲침종(浸種: 씨를 물에 담가 불리는 일) ▲포판 파종 ▲못자리 설치 등 3단계로 구분해 향후 인건비 산출의 근거로 삼을 방침이다.

전남지원은 이번 피해 조사가 끝나면 피해규모와 피해 단계 등을 확인한 후 피해 농가에 대해 종자대 환불과 씨 파종에 소요된 상토비, 인건비 등을 빠른 시일 내에 피해농가에 지원할 계획이다. 인건비 산정기준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그동안 정부는 종자값만 보상하겠다고 밝힌 반면 피해농가들은 인건비 등 모든 피해액을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Dream & Smile  
나를 키우는 대학 동신대학교

동신대학교

졸업동시 [啾啾同時]

병아리가 알에서 나오려면 새끼와 어미 닭이 알 안팎을 함께 쪼아 껍질을 깨야합니다. 동신대학교는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에 신기원을 열기 위해 졸업동시의 마음으로 스승과 제자가 함께 노력합니다.

"젊은 꿈을 큰 꿈으로 만들어 주실 교수님을 모십니다"

기간 | 2011년 6월 21일(화)~23일(목) 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제출(~18:00까지)  
문의전화 | 061. 330. 3024~5 동신대학교 교무처 교무연구팀 홈페이지 | www.dsu.kr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동신대학교 홈페이지 www.dsu.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동신대학교 | 동신대 광주한방병원 · 순천한방병원 · 목포한방병원 | 동신한방병원(서울) | 동신대 종합사회복지관